

to the sea and I beheld that the fruit thereof was white
to exceed all the whiter ones that I had ever seen and as
I passed as the fourth thereof it fell my soul with
doing great joy wherefore I began to be desirous that I should
should partake of it also for I knew that it was desirable
Above all other fruit and as I cast my eyes around
out that perhaps I might discover my fellowship also
and I beheld a river of water and it ran along and it was
near the tree of which I was pursuing the fruit and
I looked to behold from whence it came and I saw the
head thereof a little way off and at the head thereof I
beheld your Mother Sarah and your own nephews that
stood as if they knew not whether they should go any
it came to pass that I beheld unto them and I also
did say unto them with a loud voice that they should
come unto me and partake of the fruit which was
desirable above all other fruit and it came to pass that
at that time they did come unto me and partake of the fruit
Also and it came to pass that I was a river that I saw
and I saw several should come and partake of the fruit also
therefore I cast mine eyes toward the head of the river
that perhaps I might see them and it came to pass
that I saw them but they would not come unto
me and partake of the fruit and I beheld a road
of iron and it extended along the bank of the river
and led to the tree in which I stood and I also beheld
a straight and narrow path which came along
by the side of iron road to the tree in which I stood
and it also led by the head of the river unto a
large and spacious field as if it had been sowed
by I saw numberless companies of people many of
some are pressing forward that they may obtain
the path which led unto the tree in which I stood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did come forth and com-
menced in the path which led to the tree and it came
to pass that they

물문경 원고 원본의 일부. 이 부분은 니파이전서 8장 11~23절에 있는,
리하이가 본 생명나무에 관한 시현의 기록 중 일부이다.



영의 은사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한다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주께서 약속하신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물 문경 표제지는 이 놀라운 경전이 어떻게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설명해 준다. 고대에 금판이 “기록된 후에는 인봉되었고, 파괴되지 않도록 주께로 감춘 바 되었다.” 후기에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되어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번역되었다. 이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은 성스러운 기록을 번역하기 위해 조셉 스미스를 선택하셨다. 분명한 것은, 고대 문자를 번역할 수 있는 조셉의 능력은 교육을 통해 온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초등학교에서 겨우 읽기, 쓰기 및 기본적인 산수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뿐이다. 자신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언어로 여러 세기 전에 쓰여진 기록을 번역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은사였다.

남편이 하는 이 사업에서 초기에 서기로 일했던 에머 스미스는 이 신성한 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어느 누구도 영감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기록을 받아 쓰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셉의 서기로 일했을 때, [그는] 매 시간 저에게 받아 쓰게 했으며, 식사 후에 또는 중단했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원고를 보거나 원고의 어떤 부분을 읽어 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멈추었던 곳에서 즉시 시작하곤 했기 때문입니다.”¹

주님께서 선지자가 번역 일을 계속하는 데 필수적인 현세적인 도움을 주셨다. 선지자의 친구인 조셉 나이트 일세는 조셉에게 여러 차례 돈과 음식을 주었다. 한번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나이트 형제가 선지자의 집으로 찾아와 조셉과 올리버에게 “고등어 한 통과 글을 쓰기 위한 유선지”를 주었고, “20말 정도의 곡식과 10말 정도의 감자”도 주었다. 나이트 형제는 이렇게

회고했다. “조셉과 올리버가 …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둘은 이 물품들을 들고 기다리는 나를 보았다. 그들의 물품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둘은 몹시 기뻐했다.”²

1829년 4월과 5월 동안, 선지자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 있는 집에서 번역 작업을 하였지만 점점 증가하는 박해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친구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편지를 써서, 성스러운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뉴욕 주 페이에트에 있는 휘트머가의 집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1829년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 경, 선지자와 올리버는 데이비드 휘트머와 함께 데이비드의 마차를 타고 데이비드의 부친, 피터 휘트머의 농장에 있는 집으로 갔다. 번역은 6월에 휘트머 집의 2층 방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완성되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선지자의 서기로 봉사하는 동안 경험한 놀라운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이었다—하늘의 영감으로 말하여지는 음성을 들으며 앉아 있는 동안 이 가슴은 한량없는 감사를 느꼈다! 하루하루 나는 계속하여 방해받지 않고 ‘몰몬경’이라 불리는 역사 기록을 … 우림과 둠뎀을 가지고 그가 번역하는 대로 그의 입으로부터 받아 적었다.”³

이 기간 동안,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영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할 때에만 신성한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 “어느 날 아침 [조셉 스미스가] 번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그는 화를 냈다. 그의 아내 에머가 어떤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올리버와 나는 이층으로 올라갔고, 조셉도 뒤따라 올라와 번역을 계속하려 했으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한 문장도 번역할 수 없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과수원 쪽으로 가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나서 집으로 돌아와 에머에게 용서를 구하고 난 후에야 그는 우리가 있는 이층으로 올라와 문제 없이 번역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겸손하고 충실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⁴

겸손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젊은 선지자는 불가능해 보였던 몰몬경 번역을 1829년 4월 초에서 6월 말 사이에 거의 전부 완료했다.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각자 영의 은사를 갖고 있으며 각 사람의 은사는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이다.

신앙개조 제7조: “우리는 방언, 예언, 계시, 시현, 병 고침, 방언의 통역 등의 은사를 믿는다.”⁵

“우리는 예언과, 방언과, 시현과, 계시와, 은사와, 병 고침을 믿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신의 은사 없이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⁶

아마사 포터는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선지자가 나부에 있는 성전 서쪽 숲에서 많은 회중에게 전파한 것을 기억한다. 그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 전파할 것이라고 했다. … 조셉은 모든 후기 성도들이 은사를 갖고 있으며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간구함으로써 성령이 그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⁷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나니’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다 예언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이 여러 은사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다른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 사도 시대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

“교회는 각기 다른 회원들로 구성된 잘 짜여진 몸이며, 인체 구조와 유사하다. 바울은 각기 다른 은사에 관해 말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 몸의 지체인 것이다. 육신의 모든 지체가 다 눈이나, 귀나, 머리나, 손은 아니다. 그러나 눈이 귀더러 네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네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완전한 기계, 즉 한 몸 안에 있는 많은 부품들이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나머지 모든 지체도 그와 더불어 영광을 얻는다.(고린도전서 12:9~10, 18~21, 26~30 참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모두 은사이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모두 성신의 은사들이다.”⁸

우리는 순종과 신앙을 통해 영의 은사를 받는다.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실도 풍성하지 못하다. 창세 이래 신앙에 부수되지는 무언가를 갖지 않고 신앙만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대 사람들은 신앙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 신앙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히브리서 11:3, 34~35 참조) 아무런 은사도 없는 사람은 신앙도 없는 것이며, 그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신앙은 이교도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도 결핍되어 있었다. 따라서 방언, 병 고침, 예언,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모든 은사와 축복이 결핍되어 왔던 것이다.”⁹

“이번 겨울[1832~1833년에는 성경을 번역하고, 선지자 학교와 대회에 참석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내게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많은 영광스러운 기회들이 주어졌다.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는 겸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늘 변함이 없으시다는 표징으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고대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부어지기 시작했다.”¹⁰

에드워드 스티븐슨은 1834년에 조셉 스미스가 미시간 주 폰티악에서 전파할 때 그곳에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회고했다.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한다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주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¹¹

영의 은사는 대개 외적인 나타내심 없이 조용하고 은밀하게 받게 된다.

“성신의 은사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다양하며 일치하지 않는다. 초자연적인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영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관련된 나타내심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다만 심적 충동이나 내적 감흥, 인상 혹은 인간이 지닌 남모르는 비밀의 표출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외적인 출현으로서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계시나 적절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수 세기 동안 커다란 어둠과 무지 속에 살아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들이 구원의 원리 대부분을 알지 못했으며, 특히 성신의 은사의 본질, 직분, 영향, 은사 및 축복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장로들이 세상 주민들에게 복음에 순종하면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된다고 전파할 때, 사람들은 흔히 어떤 놀라운 출현, 커다란 권능의 표시, 혹은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

“사람들은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서 매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기적적인 표시를 원하며, 그 표시를 얻지 못하면 절대로 성신의 은사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만약 한 장로가 그의 손을 어떤 사람의 머리에 얹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바울이 전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한 후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사도행전 19:1~6 참조) 했다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성신의 은사가 권세를 소유한 자들의 안수에 의해 주어짐을 믿는다.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도 또한 영의 은사로서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예언을 하고 방언을 했다면 거짓말일 것이며, 사도들의 행위에 어긋나고 성경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

“… 모든 영의 은사는 육신의 눈에 보이거나 사람에게 의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적은 부분만 보일 뿐이다. …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거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였지만 유대 법정은 그들을 사기꾼으로 징계했다. 바울은 사도와 선지자였지만 그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는 성신의 은사를 지니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 구주께서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히브리서1:9) 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을 바알세불이라 칭했으며, 사기꾼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박았다. 감독, 교사, 혹은 축복사는 성신의 은사를 지니고 있지만 누가 그들의 외모로 그들을 식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교회 회원들 가운데서 바울이 말한 은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세상이 일반적으로 그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안수를 받는 즉시 그 모든 은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당장에 알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 뿐임을 발견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2:4~11)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은사가 언급되었으나, 그 중 안수 의식이 있을 때 참여하여 지켜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지혜의 말씀이거나 지식의 말씀도 다른 은사와 똑같은 은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두 가지 은사를 모두 가졌거나 안수에 의하여 받았다면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또 다른 사람이 신앙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아도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은사를 행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과 상황이 요구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자,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

는가? 또 어떤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방언을 말할 때까지 그는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은사는 두 가지 은사, 즉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뿐이다. 이 두 가지 은사는 가장 많이 거론되어 왔다.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 바울의 증언대로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국인으로 간주될 것이다.(고린도전서 14:11 참조) 그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의미없이 지껄이는 말이라고 할 것이며, 그가 예언을 한다 해도 허튼소리라고 할 것이다. 방언의 은사는 어쩌면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작은 은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하고자 하는 은사이다.

“그러므로 오순절과 같은 특별한 일이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성경의 증언과 고대에 있었던 영의 나타내심에 따르면 무리가 이 성신의 은사에 대해 아는 바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관찰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용한 은사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

“성신의 은사의 나타내심, 천사들의 성역, 혹은 권능의 발전, 하나님의 위엄 또는 영광이 공공연히 나타나는 일은 매우 드물며, 만약 나타난다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천사들이 오거나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개인에게 침실이나 광야, 혹은 들판에서 은밀히 아무런 소리도 없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나타내셨다. 천사는 한밤중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했고, 선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바울에게 왔으며, 다른 사람들 모르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다. 또한 천사가 침례 요한에게 이야기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군사들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천막 문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나 천사들이 롯에게 갔을 때에도 아브라함 외에는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도 그랬을 것이다. 주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휘장에서, 혹은 산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엘리야가 불병거에 실려 갔을 때, 세상은 그것을 몰랐다. 엘리야가 바위 틈에 있었을 때 커다란 천둥 소리가 있었으나 주님은 천둥 가운데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이 있었으나 주님은 지진 가



하나님의 권세, 위엄 또는 영광이 공공연히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것은 천막 문에서였습니다.(창세기 18:1 참조)

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그 후에 주님의 음성이었던 세미한 소리가 있었으며 그 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엘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열왕기상 19:11~13 참조)

“주님은 항상 우레와 같은 음성과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자신을 알리시지는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가장 열렬히 구하는 자들은 그것들을 볼 준비가 가장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다면, 그런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출애굽기 20:19 참조)”¹²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금판을 번역할 은사를 주셨다.(115~116쪽)
주님은 언제 여러분이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은사를 주셨는가?
- 우리는 116쪽에서 데이비드 휘트머가 말한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려면 합당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어떤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는가?
- 117쪽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복습한다. 교회는 회원들이 각기 다른 영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통해 어떻게 유익을 얻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은사로부터 유익을 얻었는가? 여러분은 언제 서로 다른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 돕기 위해 일하는 것을 보았는가?
- 118쪽에 있는 부분을 공부한다.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강화하거나 도움을 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 생각한다. “가장 좋은 은사를 간절히 구하”(교리와 성약 46:8)겠다는 결심을 한다.
- 118쪽 아래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복습한다.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토론한다. 영적인 은사는 “거의 대중에게 나타나지 않는다”(121쪽)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여러분은 왜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온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은사들이 “[그것들을] 행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과 상황”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121쪽)
- 본 장을 읽고 나서, 영적인 은사의 목적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12:1~31; 제3니파이 29:6; 모로나이서 10:6~23; 교리와 성약 46:8~33

주

1. Emma Smith, 조셉 스미스 삼세와의 인터뷰, 1879년 2월, *Saints' Herald* (현재는 Community of Christ라 불리는 복원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1879년 10월 1일, 290쪽.
2. Joseph Knight, Reminiscences, 6쪽, 교회 기록 보관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3. 올리버 카우드리, 조셉 스미스-역사 1:71에서 인용함; 올리버 카우드리가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1834년 9월 7일, 오하이오 주 노튼, *Messenger and Advocate*에 게재됨, 1834년 10월, 14쪽.
4. David Whitmer, 윌리엄 에이치 켈리와 조지 에이 블랙슬리와 인터뷰, 1881년 9월 15일, *Saints' Herald*, 1882년 3월 1일, 68쪽.
5. 신앙개조 1:7.
6. *History of the Church*, 5:27; "Gift of the Holy Ghost"에서,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된 사실, 1842년 6월 15일, 823쪽;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7. Amasa Potter, "A Reminiscence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1894년 2월 15일, 132쪽.
8. *History of the Church*, 5:28~29; "Gift of the Holy Ghost"에서,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된 사실, 1842년 6월 15일, 823~824쪽;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
9. *History of the Church*, 5:218; 1843년 1월 2일에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가르침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10. *History of the Church*, 1:322; 원문에는 대팔호 안에 날짜가 있음; "History of the Church"(원고)에서 발췌, book A-1, 270쪽, 교회 기록 보관소.
11. Edward Stevenson이 인용함, *Reminiscences of Joseph, the Prophet, and the Coming Forth of the Book of Mormon*(1893년), 4쪽.
12. *History of the Church*, 5:26~31; 원문에 있는 두 번째 단락에는 이 말씀이 대팔호 안에 있음; 현대화된 구두법 및 문법; 단락 구분 변경; "Gift of the Holy Ghost"에서,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된 사실, 1842년 6월 15일, 823~825쪽; 조셉 스미스는 이 간행물의 편집인이었음.